

# 연구비로 가정용 프라이팬 구입한 교수

### 교육부, 제주대 종합감사결과 발표... 54건 지적 연구비 사적 사용·자격미달 강사 위촉 등 들뜸

나라에서 지급하는 연구개발비로 가정용 프라이팬을 구입하고, 자격미달 시간강사 수십명을 그대로 위촉하는 등 국립 제주대학교의 민낯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9월 27일까지 10일간 제주대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감사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제주대 운영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 결과 총 54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는데 유형별로 보면 인사·복무 13건, 입시·학사 16건, 예산·회계 10건, 산단·연구비 10건, 시설 5건 등이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A교수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물품인 가정용 프라이팬 등 4종을 구입하고도 산학협력단에는 연구과제 수행에 필

요한 토너를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는 등 2016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4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총 180건·3961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교수는 연구과제 등 총 11개 과제에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외부인 등과 함께 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제출해 총 60건·1161만원 상당을 회의비로 집행하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A교수에 대해 중징계와 함께 6086만원을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제주대는 2017년 3월 1일 B

씨 학사학위 소지자임에도 학과장이 제출한 추천서만으로 시간강사로 위촉하는 등 2016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자격 요건에 미달되는 54명을 시간강사로 위촉해 학생들을 가르치게 했다.

이 밖에도 이번 감사에서는 ▷연구보조원으로 배우자와 가족 5명을 참여시켜 약 1200만원의 인건비 지급 ▷출석요건 미달 제주대 교직원에게 'A학점' 부여 ▷25명의 교수가 시험에서 동일한 문제를 반복 출제 한 것 등이 지적됐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남원·대정·안덕지역 등교중지 '해제'

### 도교육청 "7일부터 다른학교와 같은 일정 적용" 태풍 '하이선' 대비 오늘 도내 초·중·고 원격수업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남원·대정·안덕지역 학교에 취해졌던 '등교중지' 조치가 해제됐다.

제주도교육청은 남원·대정·안덕지역 40개 학교에 내려졌던 전면 원격수업 조치를 해제, 7일부터 다른 학교와 동일한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적용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오는 11일까지 시행되는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은 ▷도내 모든 초·중·고 1/3 등교수업(초 1~2는 매일 등교 수업) ▷도내 모든 고등학교 2/3 등교수업(고 3은 매일 등교) ▷특수학교 등교수업 방안은 학교 자율 결정 ▷100명 이하 학급 또는 6학급 이하 유치원 전체 등교 또는 밀집도 2/3 조치 가능·7학급 이상 유치원은 2/3 밀집도 조치 등이다.

아울러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오는 14일까지 공공시설 운영

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도교육청 산하 도서관 6곳(제주·한수물·동녕·서귀포·송악·제남)과 제주교육박물관 운영도 14일까지 중단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남원·대정·안덕지역 주민과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의 협력 때문에 등교중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었다"며 "거리두기와 밀집도 완화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안인 만큼 이를 충실히 이해하면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 현장과 제주 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하면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7일 도내 전체 학교 312개교(유치원 포함)에 대해 '원격수업' 전환을 권고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코로나19 완치자 혈장 제주에서도 공여 가능

제주에 있는 헌혈의 집에서 코로나19 완치자가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혈장을 공여할 수 있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7일부터 충청권·경상권·전라권·제주 지역의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헌혈의집 25곳에서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을 공여할 수 있다.

혈장 치료제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완치된 환자의 혈액 속에 포함된 항체와 면역글로불린을 농축해 제제화한 것이다. 가급적 많은 양의 혈장을 확보하는 게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1936명이 혈장 공여를 완료했다. 이상민기자



태풍이 오고 있지만... 조상묘 벌초 분주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북상으로 제주 전역에 비가 내리는 등 곳은 날씨를 보인 6일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한 묘지에 후손들이 찾아 벌초를 하고 있다.

# 서귀포시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특별점검

### 7252곳 대상... 마스크 착용 여부 등 집중 점검

서귀포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과 지역내 확진자 발생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위생분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고위험시설(유흥시설, 뷔페) 413개소, 음식점,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업 6808개소, 게스트하우스내 음식점 등 총 7252개소다.

이번 특별점검은 코로나19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업소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감염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점검내용은 지난달 30일부터 집합

금지명령이 내려진 게스트하우스의 고위험시설, 음식점 등의 출입자 명부 관리 실태와 마스크 착용 여부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사항이다.

방역수칙 위반 및 불법 영업행위 시 시정명령 조치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간"이라며 "시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 극복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오은지기자

# 집단휴진 파업 의료계 일선 복귀 '속도'

### 전공의도 휴진 풀 듯... 제주지역 1,2차 파업때 휴진율 20~40%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무기한 집단휴진을 이어온 의료계가 전원 업무 복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여당은 지난 4일 코로나19 안정화 시점까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대학원 설립 등 보건으로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 집단휴진을 종료하는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합의문에 따라

7일 오전부터 업무에 복귀키로했다. 대한의사협회에는 제주지역 동네의원 450곳여과 10여개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1300여명이 소속돼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14일과 지난달 26~28일 두차례에 걸쳐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한 집단 행동을 벌였다.

제주지역 동네의원들도 파업에 동참해 1차 때는 전체의원의 약 40%, 2차 때는 20~25%가 휴진했다. 전공의와 전임의들도 지난달 21일

부터 이어져 온 집단 휴진을 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의 합의문 서명 과정에서 제외된 것에 반발하며 파업·단체행동을 지속하는 방침을 유지해오다 지난 5일부터 복귀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논의 방향을 틀었다.

특히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6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라이브방송을 통해 "법정 단체인 의협(대한의사협회)이 정부 및 국회와 날치기 서명

함으로써 명분이 희미해졌다. 지금의 단체행동은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다만 전공의 제주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박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의료 현장 복귀 쪽으로 논의 방향이 흘러가는 것은 맞지만, 의대생들과 협의 과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파업 중단 방침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전공의 140여명이 7곳 종합병원에서 수련받고 있다. 환자가 쏠리는 대형 종합병원들은 전공의 파업이 계속되자 그동안 응급실에서는 위중한 응급 환자만 진료하고, 비응급 수술 일정은 연기하는 등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응해왔다.

이상민·강다혜 기자

# 노인복지회관 분전함 화제

제주시 한림읍 노인복지회관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5분만에 자체 진화되면서 큰 피해는 없었다.

제주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8시27분쯤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노인복지회관 분전함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화재는 곧바로 자체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분전함 1개가 소실됐다.

강다혜기자

